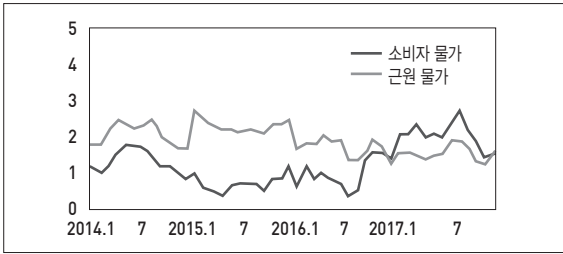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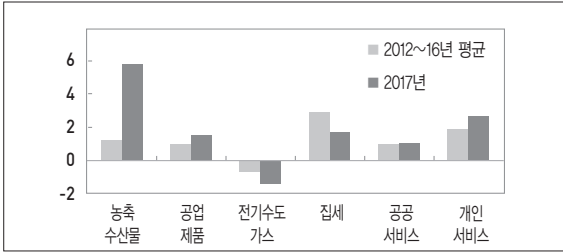
최근 물가 동향

(전년동월비, 단위: %)



부문별 물가상승률

(전년동월비, 단위: %)



통화·금융

■ 통화

2017년 11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연 1.50%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전의 기준금리 1.25%는 2016년 6월 이후 지속돼 온 것이다.

국내경제가 높은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한 데 따른 것이다. 또 향후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글로벌 경기 회복세 확대와 대중교역여건 개선 등으로 수출도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봤다.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물가상승률이 점차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저성장·저물가에 맞춰 확대해 온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분기까지 공개시장 운용은 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수단별 운용규모를 신중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4분기 중에는 유동성조절 필요규모(편자기준)가 화폐발행액 증가 등으로 전 분기보다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수요가 위축되자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발행 축소를 통해 탄력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했다.

9월에는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따라 금융중개 지원대출제도를 개편·시행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 지원프로그램으로 확대·개편해 신성장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했다. 또 연구개발투자에 비중이 큰 중소기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

고 지원 비율을 우대하기로 했다.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대상의 상시근로자 요건을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운용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과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제도 운용을 재개했다.

또한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고려해 필요시 운영하기로 했다.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과 순증액 기준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한시운영 기한도래에 따라 신규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2016년 3월 한시적으로 확대한 한도 5조원에 대한 운용을 상시화해 금융중개 지원대출의 총한도를 25조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광의의 통화(M2)의 경우 2017년 중에 5.5% 증가해 2016년 대비 증가율은 소폭 둔화했다.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등으로 민간신용이 축소되고 서비스수지 악화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축소된 것이 주된 원인이다. 협의통화(M1)와 금융기관 유동성(L)도 수시입출식예금과 M2 증가세 둔화 등으로 각각 증가율 9.2%, 6.6%를 기록하며 2016년 대비 증가율이 낮아졌다.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

(편잔 원계열, 전년동기비, 단위: %)

구분	2016	2017				
		연중	1/4	2/4	3/4	4/4
Lf	8.1	6.6	7.5	7.1	6.2	5.9
M2	7.3	5.5	6.3	6.2	4.7	4.7
M1	15.5	9.2	10.6	9.6	8.8	7.9
본원통화	13.9	10.5	10.9	10.5	9.5	11.1

주: 한국은행 ecos

■ 금리

2017년 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경제상황 개선 전망 등의 영향으로 연 초엔 제한된 범위에서 등락했으나, 하반기 들어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점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기금리는 제한된 범위에서 등락하는 가운데 단기 수신 증가(자산운용사 MMF 수신 잔액 사상 최고치 기록, 5.17일) 등으로 9월까지 하락세를 이어갔다. 2016년 중 평균 1.49%였던 CD 금리는 2017년 3분기에 1.39%로 하락했다. CP금리는 2016년 중 1.62%에서 2017년 3분기에 1.59%로 하락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등으로 10월 말 이후 단기금리는 상승세를 보이다 11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큰 폭으로 상승했다. CD금리는 연말 기준 1.50%, 2017년 중 평균은 1.44%로 2016년 평균 1.49%에서 소폭 하락했다. CP금리는 연말 기준 1.70%를 기록하며 2016년 평균 1.62%에서 2017년 중 평균 1.64%로 소폭 상승했다. 콜금리도 연중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다 4분기에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며, 2016년 평균 1.25%에서 2017년 1.23%로 소폭 하락했다.

채권 금리 등 장기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국고채 3년물의 경우 2016년 평균 1.44%에서 2017년 평균 1.80%로 큰 폭 상승했다. 연초에는 미국 통

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요인에 주로 영향을 받아 제한된 범위에서 등락했다. 6월 이후엔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증대와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상승세가 확대되기 시작해 10월에는 기준금리 인상 기대 강화로 큰 폭 상승했다.

10월 하순 이후엔 기준금리 인상 효과의 지나친 선반영 인식 등으로 급등세가 진정되고, 11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는 추가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며 안정적인 상승세가 이어졌다.

장단기금리차는 장기금리 상승과 함께 큰 폭으로 올랐다. 연중에는 상승세가 소폭 둔화했으나 4분기 중 다시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2016년 중 0.19%에서 2017년 중 0.57%로 상승했다.

은행 여수신금리도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상반기 중 제한된 범위에서 등락했으나,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장 · 단기 시장금리 추이

(기간평균, 단위: %)

구분	2016	2017				
		연중	1/4	2/4	3/4	4/4
국고채(3년)	1.44	1.80	1.67	1.68	1.77	2.09
회사채(3년, AA-)	1.89	2.33	2.15	2.21	2.31	2.64
CD(91일)	1.49	1.44	1.49	1.40	1.39	1.50
CP(91일)	1.62	1.64	1.65	1.62	1.59	1.70
콜(1일, 무담보, 은행간직거래)	1.25	1.23	1.20	1.23	1.23	1.27
은행수신금리 ¹⁾	1.48	1.56	1.50	1.48	1.50	1.74
은행여신금리 ²⁾	3.37	3.48	3.48	3.44	3.45	3.54
장단기금리차 ³⁾	0.19	0.57	0.47	0.45	0.54	0.82

주 : 한국은행 ecos

1) 기간 중 저축성수신 신규취급분 기준 2) 기간 중 신규취급분 대출평균

3) 국고채 수익률(3년) - 콜금리(1일)

■ 증권시장

2017년 주식시장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금리 인상 전망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국내외 경기여건 개선에 기반한 수출 증가와 기업실적 호조 등의 영향으로 크게 상승해 코스피지수는 11월 3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가는 연초부터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과 기업실적 개선 기대, 미국 주가 강세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4월 이후 북한 리스크 부각 등으로 잠시 약세를 보였으나 수출 호조와 기업 이익 증가 등으로 다시 오름세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하반기에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7월 말 이후에는 차익 실현과 북한 리스크 증대 등으로 소폭 약세를 보였다. 특히 9월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은 투자심리를 더욱 악화시켰다. 10월 이후 북한 리스크 완화와 기업실적 호조, 주가 저평가 인식 등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11월 3일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2,558)를 기록했다. 이후 그간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등으로 일부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지수는 2016년 말 대비 21.8% 상승한 2,467로 마감했다.

규모별로는 대형주가 2년 연속 강세를 보였으며 특히 전기전자, 금융, 화학 등 실적 개선세가 부각된 대형 경기민감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G20 국가 증시 중 코스피 상승률은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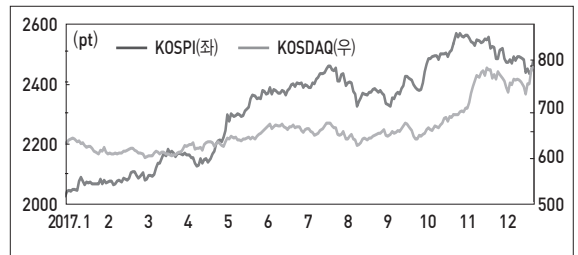
년 14위에서 2017년 6위로 주요국 증시 대비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외국인 주식자금은 2년 연속으로 순매수(2017년 +6.6조원, 2016년 11.3조원)를 기록하며 시장 상승을 주도한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4년과 9년째 순매도했다.

시가총액은 2017년 말 1천606조원으로 2016년 1천308조원 대비 298조원 증가해 사상 최초로 1천600조원대에 진입했다. 이는 대형주의 시가총액이 1천253조원(78.0%)으로 2016년 대비 244조원 증가한 것과 함께 넷마블게임즈와 아이엔지생명 등 대형기업의 기업공개(PO)로 2017년 공모 규모가 4조4천억원에 달해 2010년 8조7천억원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것 등에 기인한다.

업종별로는 의약품, 전기전자가 각각 62.9%, 45.4% 상승하는 등 글로벌 경기개선과 수출 증가에 힘입은 대형 수출주들이 강세를 보인 반면, 종이목재와 전기가스 등 실적부담 업종은 각각 -17.6%, -11.7%를 기록하며 약세를 보였다.

코스피 · 코스닥 지수 추이



2017년 주식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2016년보다 1조1천억원 증가한 9조원 수준을 기록했다. 이 중에서 코스피는 2016년보다 8천억원 증가한 5조3천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코스피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2016년 3억8천만 주에서 2017년 3억4천만 주로 9.0% 감소했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거래대금이 증가한 것은 대형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주식시장 연도별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단위: 조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코스피	4.8	4.0	4.0	5.4	4.5	5.3
코스닥	2.2	1.8	2.0	3.5	3.4	3.7
전체	7.0	5.8	6.0	8.9	7.9	9.0

2017년 중 외국인이 상장주식을 10조2천억원 순매수하고 상장채권에 9조4천억원 순투자해 총 순유입금은 19조6천억원이었다.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실적개선과 수출호조 등의 영향으로 2016년 말부터 시작된 외국인 매수세가 7월까지 지속되며 정보기술(IT)주를 중심으로 순매수가 일어났다. 순매수 규모는 2016년 12조1천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 규모는 2017년 말 기준 635조9천억원으로 2016년 말 481조6천억원보다 154조3천억원 증가했다. 전체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16년 말 31.2%에서 2017년 말 32.9%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미국(+13조2천

억원)과 유럽(+1조4천억원)에서 순매수한 반면 중동(-3조3천억 원)과 아시아(-1조원)는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채권시장은 미국의 세 차례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 대규모 매수세가 지속돼 2016년의 순유출(-12조3천억원)에서 9조4천억원 순투자자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상장채권 보유 규모는 2017년 말 기준 98조5천억원으로 2016년 말 89조3천억원보다 9조2천억원 증가했고, 전체 상장채권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은 5.6%에서 5.9%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6조6천억원), 중동(+4조7천억원)에서 순투자했으며, 유럽(-1조4천억원), 미주(-6천억원)에서 순유출됐다. 만기별로는 잔존만기 1년 이상 5년 미만 채권(+10조8천억원)과 5년 이상 채권(+7조5천억원)은 순투자한 반면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은 만기상환의 영향으로 순유출(-8조9천억원)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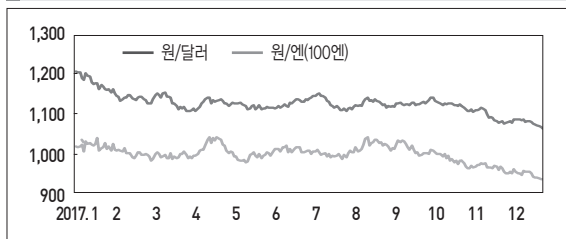
■ 외환시장

2017년 환율은 글로벌 외환시장의 변동성 완화 추세 속에 글로벌 달러화 약세, 국내 경기 개선, 북한 리스크 감소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와 수출 호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연초부터 3월 말까지는 상당 폭 하락했다. 이후 북한 리스크와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 변화 등에 따라 등락을 반복했으나, 10월 이후에는 북한 리스크 감소, 달러화 약세, 국내경제 성장 전망 상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됐다. 연말에는 연중 최저치인 1,070.5원(원화가치는 2016년 말 대비 12.8% 강세)으로 장을 마감했다.

원/엔 환율도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 변화와 북한 리스크 등의 영향을 받으며 등락을 지속하다 10월 들어 원화의 상대적 강세가 확대되며 하락해 949.2원(원화가치 2016년 대비 9.1% 강세)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원/엔 환율 동향



2017년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글로벌 외환시장의 변동성 완화에 따라 2016년에 비해 축소됐다. G-20 통화의 변동률은 2016년에 비해 대체로 축소(전일 대비 변동률 16년 0.56%→17년 0.44%)됐다. 원/달러 환율 역시 하루 중 변동 폭이 5.5원으로 2016년 7.5원에 비해 축소됐으며, 전일 대비 변동 폭도 4.4원으로 2016년 6.0원에 비해 감소했다.

2017년 말 외화보유액은 2016년보다 181억7천만 달러 증가한 3천892억7천만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외화자산 운용수익 지속, 미 달러화 약세에 따른 유로화 등 기타 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연중 증가세를 지속하며 사상 최대치 경신을 거듭했다. 2017년

말 기준 외화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총외채 규모는 2017년 말 4천188억 달러(잠정)로 2016년 말보다 347억 달러 증가했다. 만기별로는 단기외채가 112억 달러, 장기외채가 235억 달러 증가해 단기보다 장기외채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일반정부 130억 달러와 기타부문 122억 달러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총외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채 건전성과 지급능력 지표는 건전한 수준을 유지했다. 장기외채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며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는 27.7% 수준을 유지했고(2016년 대비 0.4%포인트 상승), 단기적인 대외 지급능력을 보여주는 외화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016년 대비 1.6%포인트 상승한 29.8%를 기록했다.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대외채무 347억 달러와 함께 대외채권도 947억 달러 증가해 2016년보다 600억 달러 증가한 4천567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외채권은 전 부문에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보험사 등 기타 부문에서 부채성 증권이 344억 달러 늘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자금흐름

2017년 중 금융기관 수신은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은행 수신이 시장성 수신과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자산운용사 수신은 채권형 펀드와 MMF가 감소하면서 증가 폭이 축소됐다.

은행수신은 79조5천억원 증가하며 2016년 80조8천억원에 이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대기성 자금인 수시입출식예금은 34조원 증가하며 2016년보다 증가 폭이 큰 폭으로 축소됐으나, 정기예금과 CD, 은행채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예금금리 상승, 바젤Ⅲ의 단기 유동성 지표인 LCR(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기준 강화에 따른 은행들의 자금조달 노력 강화 등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27조9천억원 증가하며 2016년 47조6천

금융기관 수신 추이

(기간 중 증감, 단위: 조원)

구분	2016	2017				
		연중	1/4	2/4	3/4	4/4
은행수신	80.8	79.5	△7.2	35.9	35.0	15.8
수시입출식	60.2	34.0	△5.1	17.8	11.5	9.8
정기예금	19.8	31.8	3.3	6.0	19.1	3.4
CD	△1.3	2.1	△1.0	7.2	0.8	△4.9
은행채	8.9	14.4	△1.3	3.6	3.9	8.3
자산운용사	47.6	27.9	17.0	7.4	7.7	△4.2
MMF	10.9	△7.0	13.9	△8.0	△3.3	△9.7
주식형	△7.7	4.2	△4.5	△0.2	2.5	6.3
채권형	18.7	△8.6	△1.1	2.9	△0.9	△9.6
혼합형	△4.0	△6.0	△2.5	△1.9	△0.7	△0.9
신종형	29.6	45.3	11.2	14.4	10.0	9.7
금전신탁	18.8	16.0	6.1	8.0	△1.1	2.9
증권사 고객예탁금	0.8	4.7	0.0	2.1	△0.7	3.4

주: 한국은행

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부동산 펀드 등 신종형 펀드는 2016년 29조6천억원에서 2017년 45조3천억원으로 크게 확대되고, 주식형 펀드는 주가 상승 등으로 2016년 7조7천억원 감소에서 4조2천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하지만 채권형 펀드와 MMF가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 손실 우려와 기회비용 증가로 4분기 들어 큰 폭으로 자금이 유출되며 연중 각각 8조6천억원, 7조원 감소하면서 자산운용사 수신 증가 폭은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증권사 고객예탁금은 4조7천억원이 증가하며 2016년 8천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크게 늘었다. 금전신탁은 16조원 증가하며 2016년 18조8천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 기업자금

2017년 기업자금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 개선과 기업실적 호조 등으로 은행대출과 직접금융 모두 2016년보다 증가 규모가 확대되며 자금조달 사정이 개선됐다.

은행대출은 경기회복에 따른 은행의 대출 태도 완화 등으로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 중소기업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 중심의 증가세가 지속되며 증가 규모가 2016년 30조5천억원에서 2017년 41조6천억원으로 확대됐다. 대기업에 대한 대출은 2016년 11조2천억원 감소에서 2017년 3조5천억원 감소로 2016년 대비 감소 폭이 축소됐다.

직접금융시장의 경우 회사채는 2016년 대비 순상환을 지속했으나 그 규모가 축소됐고, CP는 순상환에서 순발행으로 전환, 주식발행은 순발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2016년 대비 순발행 규모가 증가했다.

회사채는 금리인상 전 선발행 수요와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발행 호조 등으로 연초부터 투자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며 상반기 중 순발행됐다. 하반기에는 만기도래 증가와 투자기관 북클로징에 따른 발행 감소, 연말 기업의 재무비율 관리 등에 따른 발행 부진으로 순상환으로 전환됐다. 순상환 규모는 2016년 6조7천억원에서 2017년 3조5천억원으로 축소됐다.

CP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6년 2조1천억원 순상환에서 2017년 2조3천억원 순발행으로 전환됐다. 주식발행 규모는 유상증자를 중심으로 발행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13조9천억원 증

가해 2016년 15조9천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지속했다.

어음부도율은 2016년 0.1%에 비해 소폭 상승한 0.15%를 기록했으며, 기업대출 연체율은 대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노력 지속 등으로 0.47%를 기록하며 2016년 0.66% 대비 하락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 가계신용

가계신용은 2017년 말 1천450조9천억원으로 저금리 기조 지속, 부동산 시장 호조 등에 따라 증가세가 지속돼 2016년보다 108조4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금리상승 가능성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가계부채 종합대책(10.24) 등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으로 2016년 대비 증가율이 8.1%로 둔화하며 증가율 한자릿수 목표를 달성했다.

판매신용은 2016년 대비 8조1천억원 증가하며 2016년의 증가액 7조6천억원보다 소폭 올랐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액이 100조3천억원으로 2016년(131조9천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 가계대출은 2015년보다 131조9천억원 증가(증가율 11.6%)했으나,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100조3천억원 증가(증가율 7.9%)하며 증가세가 둔화했다. 이는 기준주택 매매거래 감소로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폭이 줄었고, 신규 분양 물량 감소로 집단대출 증가 폭 또한 줄어 전체적인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은행권에 대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비은행권의 대출 증가 폭 역시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6년 말 0.26%에서 2017년 말 0.23%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19%에서 0.17%로 하락하는 등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가계신용	1,203.1	1,342.5	1,359.1	1,387.9	1,419.3	1,450.9
가계대출	1,138.0	1,269.8	1,286.1	1,313.0	1,341.3	1,370.1
판매신용	65.1	72.7	73.0	74.9	78.0	80.8

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기업자금조달 현황 (기간 중 증감, 단위: 조원, %)

구분	2016	2017					
		연중	1/4	2/4	3/4	4/4	
기업대출	은행대출	19.3	38.1	13.2	7.4	14.9	2.6
	대기업	△11.2	△3.5	2.8	△3.3	0.6	△3.7
	중소기업	30.5	41.6	10.3	10.7	14.3	6.3
직접금융	회사채순발행	△6.7	△3.5	0.2	2.7	△1.6	△4.7
	CP 순발행	△2.1	2.3	0.5	0.4	2.5	△1.0
	주식발행	15.9	13.9	1.6	4.5	3.2	4.6
어음부도율 ¹⁾	0.11	0.15	0.11	0.28	0.10	0.11	
기업대출 연체율 ²⁾	0.66	0.47	0.71	0.59	0.58	0.47	

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1) 금액 기준, 전자결제본 제외 2) 분기말 기준

국제수지

■ 개요

2017년 경상수지는 784억6천만 달러로 20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2016년보다 207억8천만 달러 감소해 흑자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1%(잠정치)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상품수지는 1천198억9천만 달러로 2016년 대비 9억9천만 달러 증가했다. 상품 수출은 5천773억8천만 달러로 12.8%, 상품 수입은 4천574억9천만 달러로 16.4%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수